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5월 1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 건강관리담당 이세연 ☎440-1591 • 담당자 이효진 ☎440-1594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간편해진다
- 보건소 방문없이 인천광역시의료원서도 신규 등록 가능 -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연 최대 300만원 지원 -

인천시가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지원신청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부터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암환자의 경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신청 방법을 간소화해 신청자의 편의를 강화한 것이다.

인천시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암 치료의 연속적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들에게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 최대 300만원 까지 암환자 의료비지원

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지난 2021년 6월 30일까지 5대암 국가암검진을 통해 진단된 암 환자 또는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6만2,5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11만7,000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 본인부담금을 연 2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소아암환자의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모든 기준 충족 시 연 최대 2천만 원(백혈병 및 조혈모세포이식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취약계층 암환자와 가족의 가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대상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